



3면
문 대통령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에 총력"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음 2월 5일) 제248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신천지 신도 신속 조사 총력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 회의

송하진 지사, 시장·군수에
1만1135명 전수조사 주문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하되
전체 신도들·가족 포함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 여부
경북 청도 등 방문 확인



송하진 도지사는 27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도청 실·국장 및 시장·군수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도내 신천지 신도 1만1,135명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를 시군에 주문했다.

전북도는 27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시장·군수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전날 입수한 도내 신천지 신도 1만1,135명에 대해 신속한 전수조사와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도가 지난 26일 저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확보한 도내 신천지 신도는 전주 5,490명, 군산 2,065명, 익산 1,576명, 정읍 802명, 남원 158명, 김제 200명, 완주 381명, 진안 19명, 무주 7명, 장수 9명, 임실 66명, 순창 26명, 고창 212명, 부안 124명으로 총 1만1,135명이다.

이번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는 보안 유지와 신속한 조사를 위해 14개 시·군에 17개소의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보안 유지 확보를 받은 550여명의 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신천지 전체 신도와 가족까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1월말 이후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 및 예배참석 여부, 1월 20일 이후 대구, 경북 청도, 부산지역 방문 경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유증상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무증상자의 경우 향후 2주간 하루 2번씩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1차 전수조사 결과

는 28일 오전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저녁 시군 보안 담당자에게 시군별 명단과 문진표를 제공했으며, 조사 준비가 끝난 시군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밤사이 425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24명은 증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명은 감기 유증상자로 판단되어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이중 대구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1명이 있었으나 증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신천지 신도들의 개인정보 보안을 철저히 하되 증상 여부는 그 가족까지 조사를 빠짐없이 하고, 최대한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해야한다"며 "이번 조치는 신천지 신도와 전북도민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인 만큼 신천지 신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내 5번째 확진자 발생... 4번째 확진자의 남편

대구에서 군산으로 이동... 군산 거주 아들 부부는 음성 판정
전북도, 확진환자 동선 파악 접촉자 자가 격리 등 실시키로

전북도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는 최근 대구에서 아들이 거주하는 군산에 온 후 26일 확진자로 판명된 4번째 확진자 A씨(여·70)의 남편 B씨(73)가 5번째 확진환자로 판정됐고 27일 밝혔다. A씨는 원광대병원에서, B씨는 전북대병원에서 격리 입원 치료 중이다.

A씨의 아들 부부도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들은 음성으로 판정돼 현재 군산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전북도는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27일 오전 2시경 즉각대응팀을 꾸리고 이동경로와 접촉자 등에 대한 심층역학조사에 착수해 확진자와 가족인 접촉자들에 대한 동선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B씨의 동선은 A씨

와 거의 일치해 20일 대구에서 군산으로 아들 차로 이동한 후 22일 군산은 파호수공원을 산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3일 아들 직장이 있는 장항에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군산 소재 식자재 마트 들렀으며, 24일 혈압약 처방을 위해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으나 대기 시간이 길어 진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모든 이동 과정에서 A, B씨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게 도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즉각대응팀은 확진환자의 진술, 신용

카드 사용 내역, 핸드폰 위치 추적, CCTV 분석 등으로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고, 방문한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국가 지정 음압격리병실은 전북대병원(5병실) 및 원광대병원(3병실) 중 전북대병원 1개 병실이 남아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환자들을 도내 의료원 격리병실로 옮기는 등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병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군산=김정훈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 조건
편집기자(경력·신입)	본사 0명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취재기자(경력·신입)	본사 0명	위와 동일

- ▶ 접수기간: 2020년 3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착한임대, 정부 지원 이끌어내

홍남기 부총리, 착한임대인 지원정책 발표
인하분의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4월부터 혜택 제공
전주시, 정부 지원책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 지원키로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전 주발(發) '착한 임대운동'이 정부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후속 지원정책을 이끌어냈다. 착한 임대운동은 지난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14명)에 이어 14일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들이 5~20%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하는 등 상생 협력에 동참하면서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며 "민간의 착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그 절반을 정부에서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키로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의 건물주들이 참여해 특정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

에 대해서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차례 실·국장, 과장, 동장들과의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강조했다. 동장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 상인회, 건물주 등을 찾아다니며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상생에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설득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로 동참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정책과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매출 감소로 이종고에 처한 영세한 자영업자와 건물주간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고 상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